



⑥ 화두 참구법 누가 만들었나

화두의 역사: 누가 처음 화두를 만들었나?

최초의 화두는 '무자화두(無字話頭)'입니다. 무자화두 이후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화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자화두'를 개발한 분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의 노사(老師, 할아버지)인 되는 스승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 스님입니다. 그는 최초로 조주 선사(趙州, 778-897)와 신잠승 사이에 오고간 '무자공안'(무자를 둘러싼 법답) 속에서 '무(無)'라는 한 글자를 발해, 화두화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참구하도록 했습니다.

대혜종고 스님 무자화두 연구 참선수행법으로 체계화 무자화두 참구법은 우리나라 선원에서 그대로 계승

비록 처음 화두를 개발한 사람은 오조법연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참선수행법으로 체계화하여 대성시킨 스님은 역시 손제자인 대혜종고 스님입니다. 그는 오조법연이 시작해 놓은 무자화두를 본격적으로 연구, 보완하여 중국 천하에 정착시켰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에서의 '무(無)'가 당당한 화두로 등장하여 간화선이 탄생하게 된 것은 조주선사 사후 약 200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을 간화선(禪話頭, 화두를 참구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두가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혜 스님이 활동하던 1100년대이고, 화두 참구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등록> 등 선어록에 등장하는 옛 선승들의 선문답을 바탕으로 '간시결' '마삼근' '정전백수자' 등 많은 화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화두는 모두 1700여 종이나 됩니다. 이것은 선의 역사

오조 법연의 '무자화두'가 시초

서 <전등록>저자 연대 1004년. 저명한 선승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올라 있는 1701가지에 달하는 선승들의 오도(悟道) 일화에서 비롯된 숫자로, 여기에 올라 있는 선승들은 모두가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중 대혜 스님이 중시한 화두는 '무' '간시결' '마삼근' '정전백수자' 일구홀진서강수 '동산수상행' 등 6-7종입니다. 대혜 스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자화두'가 최고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가 한 글자로서 참구하기가 좋고 또 제이무리 머리를 굴려서 분석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화두로 '이렛포'가 있습니다. '이렛포'의 원문은 '시심마(提甚慮)'로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형구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최근 '이렛포'가 화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일단 1700가지 속에 들어 있는 전통적인 화두는 아닙니다. 지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말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유는 밝혀 놓지 않았습니. 당시로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천 년 전에 썼던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정확히 알기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선승 진각국사 혜심(慧謙, 1178-1234) 스님이 지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에서는 다행히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화두 심종병'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참고로 진각국사 혜심은 우리나라에 간화선을 도입시킨 보조국사의 제자로서, 그의 법을 이어 선을 정착시킨 분입니다.

그런데 대혜 스님이 제시한 화두 참구법은 모든 화두에 대한 참구법이 아니라 조주의 '무자화두'에 대한 참구법입니다. 무자화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러나 무자화두 참구법은 모든 화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두란 모두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화두 참구법 10종에는 당시 참선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병폐가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체 사랑 분별심을 갖지 말라. 목적의식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지 말라. 문자적인 탐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자화두 참구법 10종은 15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화두 참구방법은 누가 만들었나?

화두 참구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대성시킨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혜 스님입니다. 그렇다만 화두 참구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역시 대혜 스님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저서 <서장(書狀)>에서 10여 가지에 달하는 참구방법을 성문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무자화두 참구법' '무자화두 심종병(無字話頭十種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열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무자화두 심종간병(無字話頭十種揀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리는 방법 열 가지)' 또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狗子無佛性話頭病論,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사항을 논한 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두 참구법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서장(書狀)>이나 <무자화두 간병론>에는 "000을 하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자식 사랑 초월 아라한과 성취

⑥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

부처님 재세시,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이미 세상의 무상(無常)을 느끼고 출가하려고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남편의 허락 하에 출가했지만,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승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공개 조사를 통해 출가 전에 임신한 것이 증명되어 승원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후 까사빠를 낳았다. 왕의 도움으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까사빠는 곧 자신의 출생인연을 알고 출가하였다. 까사빠 비구가 출가한 지 12년이 흘렀을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도 어머니 비구니는 이별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젖은 얼굴로 탄복을 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까사빠를 만났다. 어머니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으며,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만 넘어져 가슴에 유유를 쏟아 붓고 쓰러져 버렸다. 까사빠는 달려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선 어머니는 "아, 너 때문에 나는 12년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는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굳어있구나. 왜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 일화는 마치 한편의 공안(公案)을 보는 듯 하다. 자식의 차가운 말끝

에 모든 애착을 내려놓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고탐(渴愛)하는 "그 마음을 항복 받아(降伏其心)" 일체의 집착을 떨쳐낼 수 있다면 오랜 수행을 요하지 않고도 돈오(頓悟)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문연승>에는 이 일화와 관련된 '방하좌(放下著)' 공안이 등장한다.

부처님 재세 시, 후지법지가 신통력으로 오동나무 꽃을 양손에 들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법지가 그것을 놓아버려라" 하니, 법지가 즉시 두 손에 든 꽃을 차례로 놓아버렸다. 그런데 다시 부처님은 "놓아버려라" 하였다.

법지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거늘 무엇을 놓으라 하시나이까?" 하니, 부처님께서 "내가 너에게 놓으라 한 것은 꽃을 놓으라 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 6진과 안으로 6근, 중간의 6식을 한꺼번에 놓아버려라(汝當捨 外六塵 內六根 中六識)'한 것이다. 놓아버릴 곳이 없으면 이곳이 네가 생사를 면한 곳이다" 하였다. 법지가 그 말 아래 곧 무생법인(無生法忍: 나고 죽음이 없는 마음자리)을 깨달았다.

방하좌는 주관과 객관, 생과 사, 고(苦)와 락(樂), 선과 악, 율과 그름, 유(有)와 무(無) 등의 온갖 대립관념을 버리는 것이며, 버린다는 생각조차 비우는 것이다. 일체의 고정관념, 분별심, 망상,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무일물(無一物), 무소득(無所得)의 심경이 되는 것이 깨침의 핵심이다.

까사빠의 어머니는 "5온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자아의식의 투영 없이 나와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으로써 무명(無明)의 식(識)을 지혜로 변화시킨 것이다. '전식성지(轉識成智: 식이 전변하여 지혜를 이룬다)'의 도리에 대해, 감산 대사는 "만약 '감정에서 일어나는 생각(情念)에 얽매어 멈춘다면 지혜가 인식(識)을 이룰 것이고, 만약 생각 생각이 전변하는 곳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아 감정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인식이 지혜를 이뤄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큰 선정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들의 냉정한 말에 집착의 뿌리 뽑아

애착 내려놓자 단박에 깨달음 경지에

신행게시판

●마하보디선원 집중 수련법회-경주 마하보디선원이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8박9일간 집중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동참금은 회원 15만원, 비회원 16만원이다. (054)746-9750

●아행가 요가 공개강의-아행가 요가센터 청량선원이 서울과 대구에서 2월 공개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와 17일 오후 2시 대구 사단법인 아행가요가협회 본부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 현천 스님(서울 청량선원장)은 아행가 요가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요가 디피카> <아행가 요가> <아행가 행법 요가>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요가 지도자 과정 및 강사 재교육이 실시된다. 영남지역은 대구 본부에서 2월 23일 개강하고, 수도권은 3월 15일 서울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에서 교육이 열린다. (053)981-3553

●보리수 선원 초보 및 중급 수행-서울 보리수 선원이 106차 초보 및 19차 중급 수행을 실시한다. 106차 초보수행은 2월 11~22일 오후 7시와 2월 18~22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된다. 19차 중급 수행은 2월 23일~3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붓다락따 스님과 환아원따 스님이 수행지도법사로 나서 수행자들을 지도한다. 수행보시금은 초보 수행 오전반은 7만원, 오후반은 13만원, 중급 수행은 7만원이다. (02)517-2841

●봉인사 2월 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가 2월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2월 15~20일 사미타 위빠사나 집중수련을 개최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체계적

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사미타 수행 프로그램이다. 세연도구와 필기도구, 무릎담개를 준비해야 한다. 22~24일에는 사미타 위빠사나 주말수련도 열린다. (031)574-5585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천안 호두마을이 2월 15~17일 사사나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빠사나 주말수련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6만원, 모집인원 50명이다. 22~28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은 성오 스님을 지도법사로 열린다. 참가비는 14만원. 일과 동안 새벽 4시~밤 9시까지 행선과 좌선, 수행점진 인터뷰 등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묵언, 마음챙김, 타인배려, 하심, 정숙, 말아차림, 1일 2식 등을 준수해야 한다. (041)567-2841

아바타 코스

다들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연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이베터 마스터 김희균

●전회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성원사 500나한



연양 수암사 지장 목명화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상, 목명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페,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경남지사 011-588-8317